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박주희 정진경⁺
충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에 기초하여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인 IDI(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134명, 일반인 50명,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 32명에게 IDI와 함께 개방성, 불확실성 회피, 권위주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타문화 접촉경험 질문지를 실시하여 그 관계를 조사하였다. IDI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한국에서 얻어진 요인구조는 원척도의 5요인이 아니라 7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더 적합했다. 7개의 하위요인은 Denial, 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cceptanc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로, 원척도와 비교하면 DD척도가 Denial과 Defense로 나뉘었고, AA척도가 Acceptance와 Adaptation으로 나뉘는 요인구조가 산출되었다. 비록 원척도의 구조와는 달랐지만 7가지 하위요인 모두 IDI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DMIS의 이론적 구조를 충족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하위척도의 경우 타당성이 예상만큼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척도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DMIS의 이론적 구조가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IDI를 사용할 때 해석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밝혀내었으며, 앞으로 한국인의 문화간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IDI 보다 더 적합한 척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화간 감수성,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현재 한국 사회는 동질적인 민족문화를 유지하던 사회에서 국제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 이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6백만 명이 넘고 외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수는 1천 1백만 명이 넘으며(한국관광공사, 2006), 특히 외국인 입국자 중 상당수가 결혼이주나 이주노동, 유학 등의 목적을 가진 장기 체류자임을 볼 때,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사람들과 질

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사회로의 진입과 발맞춰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탈북자(전우택, 정병호, 정진경, 2006; 김종남, 채정민, 2004; 금명자, 이영이, 이종환, 채정민, 2007)나 이주여성(박주희, 정진경, 2007; 윤형숙, 2004; 윤형숙, 2005; 한건수, 2006), 이주노동자(김희숙, 2006)들이 겪는 적응과 갈등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문화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주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08)의 일부를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정진경,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2, Email : chungj@chungbuk.ac.kr

류 한국인과의 갈등에서 유발되고 있다. 한 예로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고정관념과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이 이들에게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주희, 정진경, 2007; 한진수, 2006). 이주자들과 가족, 동료, 이웃 등으로 같이 지내는 한국인들 역시 이주자들과의 문화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이들이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간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갈등 경험은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이주자나 수용자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Ward, Bochner, & Furnham, 2001). 따라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원만히 상호작용하고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다문화시대의 문턱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특히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은 ‘문화간 유능성’, ‘문화간 감수성’, 또는 ‘다문화주의’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간 유능성이란 다른 문화의 사람과 만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감수성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문화간 장벽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자민족중심주의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Bennett & Bennett, 2004; Hammer, Bennett, & Wiseman, 2003). 이러한 개념들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사고, 문화차이에 대한 호기심,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인내심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에서 적절한 행동과 타문화에서 적절한 대안적인 행동들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친밀감, 문화차이에 대한 허용,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문화접촉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다루는 능력 등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문화간 유능성이나 감수성이 높은 개인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 원만히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이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Jahoda(1964)는 국가·세계의식의 형성과 발달을 설명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의식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였고, Banks(1981)는 소수문화 집단의 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self에서 global로 발달시키는 단계를 설명하였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Bennett(1993a, 1993b)은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정교화, 세련화 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고 가정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을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문화간 유능성이나 감수성의 추구가 중요해진 것에 비해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논의가 아직 많지 않다.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나 문화간 감수성에 대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다문화주의와 문화간 감수성에 관한 몇 가지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다. 다문화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들로는 12문항으로 구성된 Berry와 Kalin(1995)의 Multiculturalism Ideology Scale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IDI), Multiculturalism에 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5문항으로 이루어진 Leong과 Ward(2006)의 Multicultural Optimism Scale 등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다문화주의와 연관되는 개념을 묻는 척도들로는 인종과 여성에 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Ponterotto 등(1995)이 개발한 Quick Discrimination Index(QDI) 척도 중 인종적 동등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Neuliep과 McCroskey(1997)의 United States Ethnocentrism Scale(16문항)과 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21문항) 등이 있다.

이중 IDI는 DMIS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문화간 감수성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mmer 등(2003)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이론적 개념이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발달 단계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

화주의와 문화간 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이미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개발된 이래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와 문화교육, 문화간 훈련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타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를 수행할 때 상당히 유용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로서 미국과는 가치관이나 상황 등 많은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기 전에 척도에 관한 타당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IDI가 사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구조가 입증되는지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들이 타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IDI 점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

Bennett 등(1993b, 2004)은 비교문화적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문화간 장벽에 대처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각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여섯 단계로 구분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 DMIS)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정교화, 세련화 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 Bennett은 이러한 변화가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sm) 단계에서 민족상대주의적(ethnorelativism) 단계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문화를 현실인식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자민족중심적을 사용했으며, 이와 정반대로 자신의 문화를 현실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민족상대주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DMIS는 자민족중심적과 민족상대주의적 단계를 각각 3단계씩으로 나누었다. 자민족중심적의 세 단계는 부정(Denial), 방어(Defense), 그리고 경시(Minimization)이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문화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화차이에 대항하여 방어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에 의해 문화차이를 회피한다. 민족상대주의적 단계는 수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문화차이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문화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적합한 관점을 채택하고, 자아정체성에 여러 문화의 관점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차이를 인식한다.

부정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만을 진짜 문화로서 받아들인다. 즉 자신의 문화를 구성하는 믿음, 행동, 그리고 가치의 패턴을 의심할 여지없는 진짜 또는 현실로 인식한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거나 다소 애매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문화차이를 느끼지 않거나, 다른 집단들 ‘외국인들’, ‘이민자들’처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생각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진짜 ‘인간’으로 지각하고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주위환경에서 불가피한 존재로서 용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착취해도 되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차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문화차이에 대한 방어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문명세계의 가장 ‘진화된’ 형태로 간주하거나 적어도 삶에서 가장 좋은,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방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차이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세계를 ‘우리’와 ‘그들’로 조직화하고 자신의 문화를 상위로 생각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지배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가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방어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민자나 다른 소수자들이 ‘우리의 직장을 뺏고 있다’고 불평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거나, 다른 문화의 결점을 강조하고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비지배집단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단결시키고 표현함으로써 방어를 경험하는데, 지배집단의 구성원들처럼 비지배집단의 방어 경험은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관념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관념화한다.

방어에 대한 변화는 역전(逆轉)으로, 새로 접하여 적응한 문화를 상위의 문화로 생각하는 것이다. 역전은 ‘우리와 그들’을 대립시킨다는 점에서 방어와 같다. 그러나 방어와는 다르게 다른 문화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역전은 겉보기에는 자신의 문화를 분석적으로 비평하고 이에 더하여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문화간 감수성을 가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 대

한 긍정적인 경험은 정교화 되지 않은 관념화 수준에 불과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은 대개 부정적인 관념을 내면화한 것이다.

문화차이에 대한 경시는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방어 단계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문화차이를 친숙한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서 무력화시킨다. 즉, 문화차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물학적 성질(물리적 보편성)의 압도적인 유사성에 비하면 매우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종과 민족적 인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 역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문화적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옳지 않다.

DMIS의 두 번째 영역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민족상대주의적 단계들이다. 수용은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자신의 문화를 포함해서) 구별이 가능한 문화들 간의 차이점에 의해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지만 동등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들은 타문화에 대해 깊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타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수용은 동의(agreement)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문화간 감수성과 유능성은 항상 다른 문화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에 대해 동의하거나 호의를 가지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의는 특히 자신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경우 자민족중심주의의 역전 상태와 더 유사하다.

수용의 단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 상대적(value relativity)’인 태도가 필요하다. 가치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가치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가치의 상대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상대성에 직면하여 윤리관을 유지할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상황을 민족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담 후세인이 자국

통치에 있어서 폭력과 위협을 사용한 것은 현대 세계 여론의 맥락에서 볼 때는 나쁜 일이지만, 이라크인들의 자긍심을 표출하거나 미국에 굴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행동일 수 있다. 수용 단계에서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사담 후세인이 매우 복잡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치 상대성과 윤리관 간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점을 잃지 말고 다른 문화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차이에 대한 적응은 타문화 경험에서 그 문화에 적절한 행동과 지각을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타문화의 세계관으로부터 적절한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타문화에 공감하고, 타문화가 적절하다고 느끼고, 행동에서도 코드전환(code-shifting)을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지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다. 적응은 동화(assimilation)가 아니다. 동화란 이전의 세계관을 버리고 체류국이나 지배집단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적응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문화의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자신의 일차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 다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적응은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을 이룰 것이다.

문화차이에 대한 통합은 자아개념과 자아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적 세계관 안팎으로의 이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주변성(cultural marginality)’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에서 어느 쪽에도 중심을 두지 않는다. Bennett(1993a)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문화적 주변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 번째는 문화구별이 소외로 경험되는 소외된 주변성(Encapsulated Marginality)이며, 두 번째는 다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즉, 문화적 맥락을 알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상태인 건설적 주변성(Constructive Marginality)이다. 건설적 주변성은 통합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다. 이 상태의 사람들은 다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문화적 맥락을 알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은 타문화를 대하는 감수성을 단계별로 세밀하게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들을 규정하여, 감수성이 있다/없다, 낮다/높다, 자민족중심주의적이다-문화상대주의적이다라는 식의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태도 변화나, 특별한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단계에 따라 문화간 훈련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에게 단일한 훈련을 실시하던 기존의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5).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

IDI의 목적

IDI는 비교문화적 상황에서 응답자의 문화간 유능성과 감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간 유능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의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IDI는 문화간 감수성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간 감수성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간 감수성에 관한 개별 응답자들의 자기인식을 증가시키고, 특별한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발달 문제에 관한 구조적인 수준의 이해를 증가시킨다. 다양한 훈련, 카운셀링, 교육에 의한 중재 효과를 평가하고, 응답자들의 문화간 기술을 개선시키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고, 다국가적인 환경, 새로운 국가, 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자국의 환경과 같은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IDI는 다른 사회나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과 자기 자신 간의 문화차이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세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자기평가 검사이다. Bennett(1993b)의 DMIS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1998년 이래로 다른 연구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실제의 다문화 집단의 발달을 이끌거나, 개개인에게 행동을 계획하고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춘 공동체, 학교,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DMIS에

기초하여 문화차이에 관한 다섯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전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DI의 개발과정

IDI가 개발된 과정은 크게 2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Hammer et al., 2003). 첫 번째 단계에서는 IDI의 6차원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 단계는 다섯 과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 질적인 인터뷰 지침을 마련하고, 비교문화적인 상황에 있는 40명의 피험자에게 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방법으로 질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검토하고 DMIS 단계를 반영하는 진술을 확인한 후, 총 239개의 항목을 산출하였다. 세 번째 과정에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을 기초하여 239개 항목이 개정되었다. 네 번째 과정에서는 7명의 비교문화 전문가에게 239개 문항을 보내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문항 수가 145개로 감소되었다. 다섯 번째 과정에서는 145개 문항을 226명의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하고, DMIS 이론과 일치하는 여섯 가지 차원의 60문항을 확정하였다. 초기의 여섯 가지 차원은 (1) Denial, (2) Defense/Reversal, (3) Minimization, (4) Acceptance, (5) Cognitive Adaptation (6) Behavioral Adaptation 이었으며,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IDI가 5차원으로 개정되었다. Paige, Jacobs-Cassuto, Yershova와 Dejaeghere(2003)가 60문항으로 구성된 IDI의 경험적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여섯 가지 요인구조가 적합하지 않으며, IDI가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Denial과 Defense 척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Acceptance와 Adaptation 척도 역시 합쳐지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후 145개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60문항으로 구성된 IDI 초기 버전에서는 측정 할 수 없었던 DMIS의 이론 구조인 Reversal과 Integration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122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Hammer 등(2003)은 기존의 7점 척도보다 5점 척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59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22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총 3가지 모델을 테스트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Bennett(1993b)에 의해 제안된 7차원 모델 (Denial, 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cceptance, Adaptation, Integration)이었으며, 두 번째 모델은 Paige 등(2003)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5차원 모델(Denial/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cceptance/Adaptation, Integration)이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모델은 DMIS의 두 가지 축인 ‘자민족중심적’과 ‘민족상대주의적’을 측정하는 2차원 모델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차원 모델이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DMIS 이론의 각 단계와 강하게 공유되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일차원 척도를 산출하였다. 50문항은 DD(Denial/Defense)척도 13문항, R(Reversal) 척도 9문항, M(Minimization) 척도 9문항, AA(Acceptance/Adaptation) 척도 14문항, EM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서는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에 관한 신뢰도는 .80 또는 그 이상으로 산출되어 매우 신뢰로운 척도임을 입증하였다. Worldmindedness Scale(Sampson & Smith, 1957), Intercultural Anxiety Scale(Stephen & Stephen, 1985), 그리고 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Strahan & Gerbasi, 1972)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도 높게 입증되었으며 성, 연령, 교육 수준에 의한 효과는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IDI의 구성 요인

IDI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부분은 DD 척도이다. DMIS 이론의 Denial과 Defense 개념이 묶인 것으로, 여기에서는 문화차이를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문화차이를 대립시키는 세계관을 측정한다. R 척도는 최초의 6차원 모델에는 없었으나 문항개정 이후 포함된 단계이다. ‘우리’와 ‘그들’을 양극화하고 ‘그들’을 상위에 두는 세계관을 측정한다. Reversal 상태는 부정/방어 상태의 ‘거울 이미지’와 같다.

M 척도는 유사성(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향)과 보편성(다른 문화에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적용하는 경향)의 강조를 통해 문화적으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려는 세계관을 측정한다.

AA 척도는 복잡한 문화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려

는 세계관을 측정한다. DD와 마찬가지로 DMIS의 Acceptance와 Adaptation이 결합된 척도이다. 마지막으로 EM 척도는 R 척도와 마찬가지로 문항개정 이후 포함된 것으로 혼란스러운 문화적 인식을 가진 다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세계관을 측정한다. 여기에서는 통합이라고 부르는 발달된 세계관의 두 가지 이론적인 양상중 하나인 소외된 주변성을 측정한다. EM은 주로 소외의 느낌으로 특정 지어지는 ‘문화적 주변성’의 경험을 말한다. 통합의 다른 측면은 문화적 맥락 안팎으로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문화적 주변성을 경험하는 건설적 주변성이다 (Hammer et al., 2003).

IDI의 해석과 사용

IDI의 결과는 IDI를 개발한 연구소(IDI, LLC)에서 만들어진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IDI Version 2-3을 통하여 처리된다. 처리된 IDI profile은 총점을 보여주는 PS(Perceived Intercultural Sensitivity)와 DS(Developmental Intercultural Sensitivity) 점수, 그리고 각 하위척도의 점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IDI profile에 관한 예시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PS는 본인의 실제 발달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문화간 감수성 정도를 의미한다. 즉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간 감수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보여주는 점수이다. DS는 발달된 문화간 감수성 점수로서 대상자의 실제적인 발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IDI가 자신의 발달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이다. 이처럼 IDI는 총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함으로써 개인의 발달 정도에 관한 정보를 세세히 제공하고 실제적인 발달 정도와 지각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PS와 DS의 점수분포는 최하 55점부터 최고 14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55점부터 85점까지는 대상자의 문화간 감수성이 DD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고, 115점까지가 M 단계, 145점까지는 대상자의 문화간 감수성이 AA 단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PS와 DS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이상과 현실 간의 문화간 감수성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하위척도로는 DD, R, M, AA, EM 점수를 보여준다.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된 하위척도의 점수분포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구성되며, 1점부터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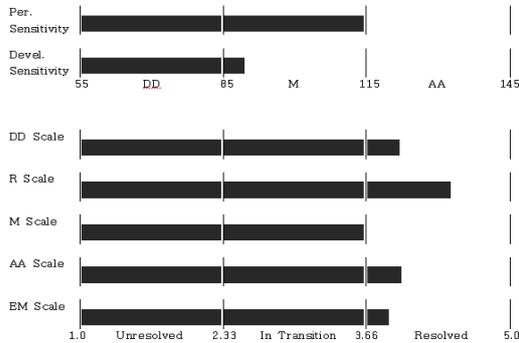


그림 1. IDI Profile 예시

점까지는 ‘unresolved’ 상태로 말 그대로 해당 하위척도에서 필요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 속한다면 각 하위요인의 발달정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 3.66점까지는 ‘in transition’ 상태로, 만일 점수가 ‘in transition’ 영역에 속해있다면 ‘unresolved’ 상태보다 우수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위요인을 더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후는 ‘resolved’ 상태로 해당 하위요인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unresolved’나 ‘in transition’ 상태에서와 같은 훈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IDI가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로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간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Altschuler, Sussman, & Kachur, 2003), 문화적인 경험이 문화차이에 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지 측정하는 연구(Klak & Martin, 2003), 그리고 국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Straffon, 2003) 등에서 측정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문화간 감수성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이론적 개념들인 개방성, 불확실성 회피, 권위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IDI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개방성은 Cattell(1946)과 Fiske(1949)에 의해 발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격의 5요인 모델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로서 도전적이고, 호기심 많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말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 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추구하고, 감정에 민감하며, 지적이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개방성은 타문화와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력, 문화차이에 대한 흥미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간 감수성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서, Hofstede(1991/1995)에 의해 발견된 문화의 4가지 차원(권력거리, 집합주의 대 개인주의, 여성성 대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중 하나이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더럽고 위험한지에 관한 분류가 엄격하고 절대적이다. 이러한 더러움과 위협은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어 피해야 할 위험한 타인들의 범주를 지정하여 인종차별주의를 싹트게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으로도 이어지는데 ‘다른 것은 무엇이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강해진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약한 문화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다른 것은 호기심을 자아낸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회피 개념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권위주의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학자들은 권위주의를 권력의 추구, 편견, 약자에 대한 우월감과 공격적 태도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민경환, 1989; Fromm, 1985/1995; Maslow, 194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면 권위주의 성향은 자민족 중심적인 사고와도 연관이 있고 어떤 대상 집단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위주의와 관련된 편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IDI의 DD와는 정적인 상관이 AA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문화적으로 인정되고 지지받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나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편향되어 반응함으로써 자신을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응답자의 반응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검사결과와 신뢰성 및 타당성에 많은 문제

점을 일으킨다(설현수, 김성운, 김동민, 2005). 따라서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다면 자기보고식 검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는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IDI는 이전의 외국방문, 외국어 학습,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와의 교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DI가 토대로 하고 있는 DMIS 이론의 개념적 원리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다. DMIS는 기본적으로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증가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와의 질 높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타문화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나 외국인 친구와의 교제, 타문화권 방문,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같은 변인들은 문화간 유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Paige 등(2003)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나 언어-문화 학습,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와의 관계 등이 문화간 유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연구목적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을 측정하는 척도인 IDI가 국내에 소개된다면 문화간 유능성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문화간 감수성과 문화간 훈련의 이론 성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DI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는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척도가 개발된 곳이 대표적인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는 미국인만큼 원척도에서 확인된 요인구조가 지금껏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유지해온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각 하위척도에서 측정하는 문항들이 한국인의 문화간 감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인의 문화간 감수성과 한국인의 문화간 감수성이 반드시 동일한 구조와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IDI가 한국에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신뢰도를 확인하고, IDI와 개방성 척도, 불확실성 회피 척도, 권위주의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상관을 통해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 타문

화 접촉경험 정도와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들과 학생, 일반인들의 IDI 점수를 비교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 정도와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대학생과 일반성인, 그리고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 총 216명(남 : 77, 여 : 13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학생은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4명(남 : 42, 여 : 92)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20.7세(표준편차 2.04)였다. 일반성인은 50명(남 : 27, 여 : 23)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35.2세(표준편차 6.85)였으며, 다문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성인은 32명(남 : 8, 여 : 24)으로 평균 연령은 만 35.5세(표준편차 8.76)였다. 일반인 집단은 대한민국 일반 성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 성별,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문화간 감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집하였으며,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 집단은 IDI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도구

IDI

IDI는 Bennett(1993b)의 DMIS에 기초하여 구성된 척도로써 Hammer 등(2003)에 의해 개발되었다. 응답자들의 문화간 감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문화간 감수성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섯 가지 하위척도를 측정하는 5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높은 점수는 더 발달된 문화간 감수성을 의미한다. 척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 : (1) DD 척도(13문항), (2) R 척도(9문항), (3) M 척도(9문항), (4) AA 척도(14문항), (5) EM 척도(5문항).

IDI는 원 개발자들에 의해 영문 버전 외에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타문화권 태도 척도의 변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

든 언어에서 동일한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쳤다 : (1)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번역자 A에 의해 영어에서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2) 번역자 B에 의해 해당 언어에서 영어로 재번역하고, (3) 번역자 A를 포함한 연구팀에서 영어와 해당언어 버전의 문법, 의미, 표현 등을 비교하여 해당언어 버전을 영어버전과 가장 유사하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판 IDI를 사용하였으며, IDI의 총점 및 각 하위척도의 점수는 IDI Version 2-3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되었다.

개방성 척도

개방성은 John, Donahue와 Kentle(1991)의 Big Five Inventory(BF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로 대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며,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tinez와 John(1998)의 연구에서는 신경증(N), 외향성(E), 개방성(O), 친화성(A), 성실성(C) 각각에 대하여 미국대학생은 .84, .88, .81, .79, .82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O)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피 척도

불확실성 회피는 Hofstede(1995)의 이론에 근거하여 양계민과 정진경(2005)이 제작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척도의 제작 당시 내적 신뢰도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

권위주의는 민경환 (1989)이 제작한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sex)의 9개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신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위주의적 공격성,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의 4개 하위요인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향으로 인한 응답자들의 왜곡된 반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trahan & Gerbasi(1972)가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SDS(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의 축소모형을 사용하였다. SDS는 Crown과 Marlowe가 개발했을 당시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척도가 다른 검사와 함께 사용될 때 발생하는 측정 소요시간의 증가 및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형문항을 축소한 간편형 검사가 주로 사용된다(설현수, 김성운, 김동민, 2005).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한 Strahan & Gerbasi(1972)의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 계수는 남자대학생 집단 .70, 여자 대학생 집단 .6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52로 나타났다.

타문화 접촉경험 질문지

타문화 접촉경험과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 외국어 학습 경험, 타문화에 대한 흥미, 다문화적인 활동 등을 묻는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타문화 접촉경험에는 관광, 출장, 유학 및 연수, 봉사활동, 이민 등의 장기체류, 해외 근무 등을 통해 외국을 방문한 경험과 빈도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와 외국어 학습 경험은 외국인 친구의 유무와 친구 수, 접촉 빈도, 외국어 학습경험 유무, 학습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타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프로그램 시청 빈도를 묻는 문항과 봉사활동, 다문화적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 다문화적인 활동 문항 등이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절차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의 요인모형이 한국에서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문항분석을 실시한 후에는 개방성 척도와 불확실성 회피 척도,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고,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비교하였다. 준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 1. IDI의 요인분석 결과

번호	문항	1	2	3	4	5	6	7	8
5	Acceptance	.671							
3	Acceptance	.609							
23	Acceptance	.593							
47	Acceptance	.487							
21	Acceptance	.435							
45	Minimization		.765						
36	Minimization		.621						
30	Minimization		.577						
46	Minimization		.505						
7	Minimization		.410						
29	Reversal			.779					
28	Reversal			.740					
31	Reversal			.458					
39	Defense				.711				
40	Defense				.594				
42	Defense				.406				
12	Adaptation					.632			
9	Adaptation					.581			
32	Adaptation					.524			
10	E.Marginality						.745		
2	E.Marginality						.700		
48	Denial							.563	
18	Reversal							.489	
22	Defense							.449	
38	Denial								.781
43	Denial								.463
		9	10	11	12	13	14	15	16
16	Minimization	.732							
7	Minimization	.427							
15	Defense	.418							
35	Denial		.566						
44	Reversal		.524						
25	E.Marginality			.631					
21	Acceptance			-.438					
33	Reversal				.685				
34	Denial				.533				
17	Denial					.561			
37	Reversal						.502		
27	Denial							.515	
41	Minimization								.625

타문화 접촉경험 정도와 IDI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학생 및 일반인들의 IDI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

한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정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외국에서 개발된 IDI의 구성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varimax 회전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Hammer 등(2003)의 연구에서 IDI가 다섯 요인으로 추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7개가 산출되었다. 그 중 각 요인에서 .40 이상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변인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1은 DMIS 이론의 Acceptance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으며, 요인 2는 Minimization에 해당하는 요인을 포함하였다. 요인 3은 DD 요인의 Reversal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Defense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요인 5에는 Adaptation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6은 Encapsulated Marginality에 해당하는 2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 7에는 Denial, Reversal, Defense 문항이 각각 한 문항씩 포함되었다. 요인 8은 Denial에 해당하는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 9 이후부터는 DMIS 이론의 요인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척도에서 서로 다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묶였고,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백분율이 3%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의 요인구조에 맞고 해석이 가능한 요인은 요인 8까지로 보인다. 요인 8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척도에서는 DMIS 이론이 통합적으로 묶여 DD, R, M, AA, EM의 5가지 요인이 확인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R, M, EM이 확인되고 DD 요인

이 각각 Defense와 Denial로 나누어지며, AA 요인 역시 Acceptance와 Adaptation 요인으로 더 세밀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요인 7은 원척도에서 Denial, Defense, Reversal에 속하는 문항들이 각각 1개씩 산출된 것으로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Hammer 등(2003)이 타문화에 대한 태도와 문화간 감수성의 발달을 5가지 차원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일곱 가지 발달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

내적 신뢰도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내적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각 하위요인의 내적 신뢰도는 .60에서 .70까지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은 .17에서 .56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항 제거시 α 계수를 증가시키는 문항들이 Denial, Minimization,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에 각각 1문항씩 존재하였으나 이 때 α 를 증가시키는 정도가 .001에서 .017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검사의 모든 문항들을 한 문항도 제외시키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7가지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IDI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1차로 대학생 134명에게 IDI를 실시하고 이중 18명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5주 후에 IDI를 재 실시하였다. 1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

표 2. IDI의 내적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요 인	문항 수	내적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1	Denial	7	.60	.56*
2	Defense	6	.70	.86***
3	Reversal	9	.64	.64**
4	Minimization	9	.70	.85***
5	Acceptance	5	.69	.68**
6	Adaptation	9	.68	.83***
7	Enc. Marginality	5	.63	.69**

* $p < .05$, ** $p < .01$, *** $p < .001$

는 .71(PS), .72(DS)로 나타나 본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하위척도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IDI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기존의 표준화된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IDI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리된 점수는 높을수록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높은 문화간 감수성과 유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하위척도는 지적지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방성 척도와는 모두 정적 상관을, 외국인 공포증, 인종차별주의와 연관되는 불확실성 회피 척도와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과 자민족중심주의 성향과 연관되는 권위주의 척도와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IDI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표 3에 각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총점을 의미하는 두 가지 점수 중 PS는 개방성($r=.15, p<.05$), 불확실성 회피($r=-.24, p<.01$), 권위주의($r=-.41, p<.001$)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DS 점수는 불확실성 회피($r=-.23, p<.01$)와 권위주의($r=-.42, p<.001$)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Denial 척도는 개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r=.15, p<.05$), 불확실성 회피($r=-.36, p<.001$), 권위주의($r=-.46, p<.001$)와는 유의미한 부적상

관을 보였으며, Defense 척도는 불확실성 회피($r=-.22, p<.01$)와 권위주의($r=-.30, p<.001$)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eversal과 Minimization 척도는 권위주의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Acceptance는 개방성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6, p<.001$). Adaptation과 Encapsulated Marginality는 세 척도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은 어떠한 하위척도와의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IDI의 모든 하위척도가 개방성, 불확실성 회피, 권위주의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 개방성, 불확실성 회피, 권위주의와 가장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DD와 AA와 관련된 변인들에서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개방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불확실성 회피 및 권위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하위요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준거 타당도

Paige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이전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나 언어 학습,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와의 관계가 문화간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이러한 변인들이 IDI 점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IDI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외국방문경험,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 외국어 학습,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다문화적 활동의 경험과 기간이 증가할수록 IDI 점수도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 IDI와 각 척도간 상관관계

	개방성	불확실성	권위주의	사회적 바람직성
Per. Sensitivity	.15*	-.24**	-.41***	-.00
Dev. Sensitivity	.11	-.23**	-.42***	.00
Denial	.15*	-.36***	-.46***	.07
Defense	.13	-.22**	-.30***	-.10
Reversal	.00	-.07	-.20**	.03
Minimization	-.10	.06	-.14*	-.05
Acceptance	.26***	-.08	-.06	-.09
Adaptation	.29***	-.27***	-.14*	.06
Enc. Marginality	.17*	-.21**	-.28***	.09

* $p<.05$, ** $p<.01$, *** $p<.001$

외국방문경험과 외국인 친구, 외국어 학습, 다문화적 활동경험 유무에 따른 IDI 점수의 t-검증 결과와 외국에 대한 관심도 및 프로그램 시청 빈도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유의미 정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외국방문경험은 관광, 출장, 유학 및 연수, 자원봉사, 이민 등의 장기체류, 해외근무 경험의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관광, 출장, 유학 경험은 총점 및 일부 하위척도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관광이나 출장과 같은 단기 경험보다 유학과 같은 장기 경험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봉사활동, 장기체류, 해외근무 경험의 경우 경험자의 수가 비경험자의 수에 비해 너무 적어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의 평균점수 역시 외국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총점과 일부 하위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외국어 학습유무 역시 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학습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PS와 Defense, Acceptance, Adaptation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외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외국에 관한 문헌과 자료에 대한 관심도와 다른 문화권에 관한 프로그램 시청 빈도로 측정하였으며, IDI 하위척도 점수와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에 대한 관심은 PS, DS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척도 중에서는 Denial, Defense, Acceptanc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에서 관심이 높을수록

하위척도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프로그램 시청 빈도역시 총점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하위척도 중에서는 Denial, Defense, Encapsulated Marginality에서 시청빈도가 높을수록 ID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적 활동 내역에는 크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다문화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의 두 가지가 포함되었다. 봉사활동 유무는 총점과 Denial, Defens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의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점수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문화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경험 여부는 Denial, Defense, Acceptanc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다섯 가지 하위척도 모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총점을 의미하는 PS와 DS에서는 경험 유무와 관심도의 차이가 상당히 명확하였다. 하위척도 중에는 Denial, Defense, Adaptation에서 경험 유무와 관심도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명확하였으며, Acceptance와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의 경우 위의 세 하위척도만큼은 아니었지만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비교적 잘 나타났다. Reversal과 Minimization 척도에서는 경험 유무와 관심도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다문화 경험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외국방문경험 유무			외국인 친구	외국어 학습	관심과 흥미		다문화적 경험	
	관광	출장	유학			관심	시청	봉사	프로그램
Per. Sensitivity	**	**	***	**	*	***	*	*	*
Dev. Sensitivity	*		**	**		***	*	*	*
Denial	*		***	***		***	**	***	**
Defense	*	*	**	***	*	***	*	**	**
Reversal			**						
Minimization									
Acceptance				**	*	*			**
Adaptation	***	***	**	***	**	***		***	***
Enc. Marginality				**		*	*	*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집단별 IDI 평균점수

	대학생 (N=134) M(SD)	일 반 (N=50) M(SD)	다문화종사자 (N=32) M(SD)	전 체 (N=216) M(SD)	F
Per. Sensitivity	117.91	117.65	120.44	118.21	2.91
Dev. Sensitivity	83.66	82.46	89.45	84.21	2.71
Denial	3.75	3.82	4.13	3.82	6.69**
Defense	3.30	3.06	3.62	3.29	6.80**
Reversal	3.57	3.51	3.63	3.57	.57
Minimization	2.71	2.62	2.45	2.66	2.47
Acceptance	3.62	3.72	3.78	3.67	.99
Adaptation	3.17	3.27	3.50	3.24	5.95**
Enc. Marginality	3.90	3.77	4.02	3.89	1.60

** $p < .01$

Bennett(1993b, 2004)은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정교화, 세련화 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이 빈번하고 경험의 질이 우수한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IDI 점수가 대학생 및 일반인 집단의 IDI 점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 32명에게 IDI를 실시하였으며, 이들과 학생, 일반인 집단과의 IDI 점수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의 IDI 총점 및 하위척도 점수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DI의 일곱 가지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Denial($F(2,211)=6.69, p<.01$), Defense($F(2,209)=6.80, p<.01$), Adaptation($F(2,208)=5.95, p<.01$) 점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와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다문화 업무 종사자의 Denial 점수가 학생과 일반인 집단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생과 일반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업무 종사자의 Defense 점수는 일반인 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학생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daptation 점수는 다문화 업무 종사자와 학생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다문화종사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한국인의 문화간 감수성 정도

한국인의 문화간 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일반인,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 각 집단별로 두 개의 총점과 일곱 개의 하위척도 점수가 IDI manual에서 제시한 분류의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총점인 PS와 DS는 55점부터 145점까지의 분포를 가지며, 이중 85점까지가 DD 단계이고 115점까지는 M 단계, 145점까지가 AA 단계이다. 각 집단의 점수 분포를 보면 세 집단 모두 PS는 AA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는 학생과 일반인 집단은 DD 단계에 속하고, 다문화 업무 종사자 집단만이 M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PS 점수가 DS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세 집단 모두 PS와 DS 차이가 30점 이상씩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1점부터 2.33점까지는 unresolved 단계이며, 2.33점부터 3.66점까지는 in transition, 3.66점부터 5점까지는 resolved 단계이다. 하위척도별로 각 집단의 점수를 살펴보면 Denial,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는 세 집단 모두 resolved 단계에 속했으며, 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daptation 척도는 세 집단 모두 in transition에 속하였다. 집단간 단계별 차이가 나타난 척도는 Acceptance가 유일했다. 학생 집단의 Acceptance 평균은 3.62로 in transition 단계에 속하지만, 일반인과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는 resolved 단계에 속하였다.

표 6. 교육 수준에 따른 IDI

	고등학교 졸업 이하 (N=6)	대학교 졸업 이하 (N=188)	대학원 졸업 이상 (N=20)	전 체 (N=214)	F
Per. Sensitivity	114.22	117.94	121.26	118.19	4.52*
Dev. Sensitivity	74.08	83.58	91.22	84.13	4.08*
Denial	3.45	3.80	4.10	3.82	4.37*
Defense	2.25	3.27	3.69	3.29	1.38***
Reversal	3.34	3.56	3.70	3.57	1.28
Minimization	2.58	2.65	2.68	2.65	.05
Acceptance	3.67	3.66	3.81	3.67	.49
Adaptation	3.20	3.21	3.53	3.24	3.61*
E. Marginality	3.16	3.88	4.04	3.87	4.21*

* $p < .05$, *** $p < .001$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른 IDI 점수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수준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성별과 IDI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점 및 일곱 가지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소득, 교육 수준과 IDI의 관계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령과 소득 변인은 IDI의 총점 및 일곱 가지 하위척도 중 어느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 수준과는 두 가지 총점 및 네 가지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Denial($F(2,209)=4.37, p < .05$), Defense($F(2,207)=1.38, p < .001$), Adaptation($F(2,206)=3.61, p < .05$), Encapsulated Marginality($F(2,210)=4.21, p < .05$) 척도가 교육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총점은 물론 Denial, Defens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에서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과 IDI 총점 및 하위척도와의 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IDI의 요인구조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인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검사(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가 한

국에서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IDI의 요인구조가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Hammer 등(2003)이 제안한 IDI의 5요인 모델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5요인구조(DD, R, M, AA, EM)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IDI의 이론적 토대인 DMIS 이론 구조에는 적합한 7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Denial, 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cceptanc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로, 이 7요인은 DMIS 이론이 설명하는 각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문화만을 진짜 문화로 받아들이는 Denial(부정)과 타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Defense(방어)가 합쳐져서 DD 요인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Denial과 Defense 요인이 각각 다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Denial 요인을 묻는 문항의 내용을 보면 타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거부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Defense 요인에는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문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Denial과 Defense 요인이 합쳐졌다는 것은 미국인들은 타문화인과 문화적 다양성을 꺼려한다는 것과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개념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 부국인 미국의 특징 때문에 타문화에 무

관심한 단순한 사람은 자문화중심성도 높고, 타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문화중심성이 낮아지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들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꺼리는 것과 (Denial), 우리 문화를 최고로 여기는 것(Defense)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자문화중심성을 나타내는 Defense는 문화적 경험과 관련되는 발달, 성숙의 차원이 라면 타문화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를 나타내는 Denial은 그와는 다른 변이들의 독립적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Acceptance 요인과 Adaptation 요인이 분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Acceptance를 묻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화적 차이를 목격할 적인지를 묻고 있으며, Adaptation에 관한 문항들은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받아들이고 타문화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미국인들에서 Acceptance와 Adaptation 요인이 합쳐진 것은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를 구성 해 온 미국에서는 문화차이를 목격하는 것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는 문화 차이를 목격하는 것이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원칙도의 AA 요인이 Acceptance와 Adaptation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문화간 감수성의 요인구조가 다른 것은 일찍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타문화에 대한 차별이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회와 급속도로 다문화(multiculturalism)를 구성하게 된 사회 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에 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사회적·역사적 차이나 문화차이를 연구한 자료를 참고하여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탐구해 봐야 할 것이다.

IDI 하위척도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IDI의 타당도를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의 양면에서 검증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는 개방성, 불확실성 회피, 권위주의, 사회적 바람직성과 본 연구에서 추출된 일곱 가지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불확실성 회피와 권위주의는 대부분의 하위척도 및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개방성은 몇 개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예상대로 어느 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Reversal, Minimization과 Acceptance는 대체로 상관이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도에서는 Worldmindedness 척도와 Intercultural anxiety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역시 DD와 AA, EM 척도와만 상관이 나타났고, Reversal, Minimization 척도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Hamm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원칙도와 비슷한 정도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준거 타당도는 외국방문 경험과 외국인 친구, 외국어 학습, 외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 다문화적 활동 경험의 유무와 기간을 묻는 문항들과 IDI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관광, 출장, 유학 및 연수를 포함한 외국방문경험, 외국인 친구의 유무, 외국어 학습 정도, 외국에 대한 관심도, 봉사과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다문화적 경험의 유무 등은 대부분의 경우 IDI의 총점과 Denial, Defense, Adaptation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Acceptance와 Encapsulated Marginality에는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 Reversal과 Minimization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차이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시도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복되었다. Denial과 Defense, Adaptation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IDI의 하위척도 중 Denial, Defense, Adaptation 척도의 타당성은 강하게 입증되었고 Acceptance,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의 타당성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versal과 Minimization 척도의 타당성은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Reversal과 Minimization의 경우 요인은 구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론적 구조는 반영이 되지만,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과 문화간 감수성 및 다문화주의를 예측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요인으로 여겨진다.

성별, 연령, 소득에 의한 평균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원칙도의 경우 DD 척도에서만 남성의 평균이 여성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바 있다. 또한 원칙도에서는 연령과 교육 수준에 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Denial, Defense, Adaptation, Encapsulated Marginality 척도에서 교육수준에 의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네 가지 하위척도 모두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증가하였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교육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의 IDI 총점을 분석해 본 결과 PS는 세 집단 모두 높은 단계에 속하지만 DS는 낮거나(대학생, 일반) 중간(다문화 업무 종사자)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간 감수성을 실제 발달 정도보다 과장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DS와 PS의 점수 차이가 세 집단 중 가장 컸던 대학생 집단을 예로 들면, 실제로는 타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각하기로는 타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적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세 집단 모두 PS와 DS의 점수 차가 30점 이상씩이었지만 타문화에 대한 태도가 가장 발달한 집단인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점수 차이는 세 집단 중 가장 소폭이었다. 그러나 이 집단 역시 실제 발달 정도는 중간 단계이지만 자신들의 발달 정도를 높은 단계로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발달 정도를 실제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실제 발달 정도는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 별로 살펴보면, Denial과 Encapsulated Marginality는 ‘resolved’ 단계로 상당히 잘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Defense, Reversal, Adaptation은 ‘in transition’ 단계로 앞으로 문화간 훈련을 통해 태도를 더 발달시킬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Acceptance의 경우 유일하게 집단간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집단은 ‘in transition’ 단계였고, 일반인과 다문화 업무 종사자는 ‘resolved’ 단계에 속하였다. 그러나 학생 집단의 Acceptance 점수는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resolved’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한국

인들의 실제 타문화에 대한 태도 정도는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Defense, Reversal, Acceptance, Adaptation과 관련하여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제안점

세계화의 기치 아래에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 아래에서 한국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피할 수 없으며 이미 외국인 이주자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이 안정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IDI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DI는 다문화주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타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DMIS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DMIS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말하는 문화간 감수성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며, 타문화에 대한 태도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가장 이론적 토대가 명확하며 해석이 용이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IDI는 개발 당시 미국에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강하게 입증된 척도이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를 일구어 온 미국과 이제 막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과 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검증결과 요인구조는 원칙도의 구조와는 달랐지만, IDI의 이론적 토대인 DMIS 이론의 요인구조와는 일치하여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DMIS 이론의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타당도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IDI가 한국에서도 사용이 무방함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하위척도의 타당성이 예상만큼 입증되지 않아서 해

석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IDI의 사용은 가능하나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문화에서 IDI 사용시, IDI의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처리하고 모든 하위척도들을 원칙도의 원칙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도가 5단계로 문화간 감수성을 해석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7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중 특히 Reversal과 Minimization 요인의 경우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실제적인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Development)'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인들의 문화간 감수성 또는 다문화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다문화 아동 등 타문화에서 온 이주민 집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 개발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인들의 문화간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간 훈련이 요구된다. 문화간 훈련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각력을 높이는 것,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에 직면하는 것,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던 행동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5). 이러한 문화간 훈련은 타문화인들 끼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가 부딪치는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인들의 문화간 감수성, 즉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간 감수성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과소평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다문화적인 상황이 일으킬 수 있는 갈등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과 함께 조

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간 훈련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희숙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노동자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안성지역 미등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설현수, 김성운, 김동민 (2005). Marlowe-Crown의 사회적 정향성 척도 타당화. 한국교육평가학회, 19, 101-123.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97-115.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321-349). 서울: 한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 299-339. 제주: 학연문화사.
-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01-136.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 185-215.
- 채정민, 김종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8-243.
- 한국관광공사 (2006. 12. 5). <http://www.knto.or.kr/index.jsp> 에서 2007년 6. 1 인출.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 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3(2), 33-54.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Althuler, L., Sussman, N. M., & Kachur, E. (2003). Assessing changes in intercultural sensitivity among physician trainees using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387-401.
- Banks, J. A. (1981).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Boston : Allen & Bacon.
- Bennett, J. M. (1993a). Cultural marginality :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pp.109-136). Yarmouth, ME : Intercultural Press.
- Bennett, M. J. (1993b). Toward ethnorelativism :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pp.21-71). Yarmouth, ME : Intercultural Press.
- Bennett, J.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pp.147-165). London : Sage.
-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 301-320.
- Cattell, R. B. (1946). *Th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 Yonkers, NY : World Book.
- Fiske, D. W. (1949). Consistency of the factorial structures of personality ratings from different sour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4, 329-344.
- Fromm, E. (1998). 자유에서의 도피[*Escape from Freedom*] (이상두 역). 서울 : 범우사(원전은 1985년에 출판).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21-443.
- Hofstede, G.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차재호, 나은영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1991년에 출판).
- Jahoda, G. (1964). Children's concept of nationality : A critical study of Piaget's stages. *Child Development*, 35, 1081-1092.
- John, O. P., Donahue, E. M., & Kentle, R. L. (1991). *The "Big Five" Inventory-versions 4a and 54*.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nstitute of Personality and Social Research.
- Klak, T., & Martin, P. (2003). Do university-sponsored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help students to appreciate "dif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45-465.
- Leong, C. H., & Ward, C. (2006).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 The case of the Eurobarometer survey on racism and xenophob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799-810.
- Martinez, V. B., & John, O. P. (1998). Los cinco grandes across cultures and ethnic groups : Multitrait multi-method analysis of the big five in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729-750.
- Maslow, A. H. (1943). The Authoritarian character structu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401-411.
- Neuliep, J. W., & McCroskey, J. C. (1997). The development of a U. S. and 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4, 385-398.
- Paige, R. M., Jacobs-Cassuto, M., Yershova, A., & DeJaeghere, J. (2003). Asses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ammer and Bennett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67-486.

- Ponterotto, J. G., Burkard, A., Rieger, B., Grieger, I., D'Onofrio, A., Dubuission, A., Heenehan, M., Miilstein, B., Paris, M., Rath, J. F., & Sax, G. (1995).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Quick Discrimination Index(QDI).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1026-1031.
- Sampson, D. L., & Smith, H. P. (1957). A scale to measure world-minded attitud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99-106.
- Stephen, W. G., & Stephen, C. W.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 157-176.
- Straffon, D. A. (2003). Assessing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an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87-501.
- Strahan, R., & Gerbasi, K. C. (1972). Short homogenous version of the 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191-193.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2nd ed.). London : Routledge.

A Validation Study for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IDI)

Joo-Hee Park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validity of the IDI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which measures the developmental stage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based on the DMIS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Korea. One-hundred and thirty-four college students, 50 adults, and 32 multicultural specialists answer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items for the IDI, openness, uncertainty avoidance, authoritarianism,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The factor analysis of the IDI revealed 7 factors in Korea instead of the 5 factors in America. The factors were Denial, Defense, Reversal, Minimization, Acceptance, Adaptation, and Encapsulated Marginality all of which fit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the DMIS. Tests f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s well as criterion validity of the IDI showed reasonably high validity levels for administration in Korea. The paper discusses the caution to be taken on the administr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IDI, and the need to develop a new test to measure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Koreans in their cultural context.

Keyword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1차원고 접수일 : 2007년 12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9일